

#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 연구

-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을 중심으로

이미정\*

차례

1. 서론
2.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
3. 남성 '동화(同化)'적 여성교양론 -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
4. 결론

## 〈국문초록〉

해방 이후 '교양'의 개념은 새로운 사회 계층과 시민 집단을 형성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다. 여성교양 담론 연구가 주로 여성 매체를 통해 담론화된 여성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그간 교양을 내면화한 여성 주체의 실질적인 발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기존 여성교양 담론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상태며, 오히려 남성에 의해 재구성된 여성성 혹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시각 차이에 집중해왔다. 여성 논자들의 개별적인 목소리 연구를 목적으로 한 본고의 논의는 당시 활동했던 여성 논자 중 해방기부터 왕성히 활동해온 정충량의 논의를 토대로 여성교양 담론의 세부적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여성교양은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범주를 가정의 영역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남성과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드러냈다.

---

\* 충북대학교 시간강사

반면 정충량의 여성교양의 개념은 어머니 혹은 아내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았다. 여성교양은 남녀평등의 전제조건이었다. 정충량은 남성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남녀평등을 논의하는 남성 ‘동화’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은 1950년대 남녀의 위계질서를 수용한 일반적 여성교양 담론에 비해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충량은 여성의 사회적 영역을 확장하고 남녀평등을 위한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며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여성교양 담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핵심어 : 정충량, 교양, 여성, 1950년대 여성성, 여성교양, 남성동화, 남녀평등

## 1. 서론

해방 이후 ‘교양’ 개념은 새로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당시 교양은 “女性的 社會的地位를 向上시키는 基本條件”<sup>1)</sup>이었으며, 지도층이 알아야 할 “共同社會의形成原理”<sup>2)</sup>이자 “文明國民”<sup>3)</sup>의 자질이었고 “共產主義와 共產主義者들의 戰略戰術”<sup>4)</sup>에 대한 방어기체로도 사용되었다. 교양은 사회 규범과 도덕적 자질, 정치적 성향에 대한 상징성을 내포한 채 다양한 형태로 담론화 되어갔다.

교양 범람 현상은 해방 이후 출판의 자유와 인쇄매체 발달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엘리트 집단에 의해 향유되었던 교양의 범주는 인쇄물을 매개로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다양한 계층을 선도하는 내용을 담은 채 이질적인 형태로 생산되었다. “교양론의 사회적 유포가 종합잡지 봄이나

1) 『全局女性代表者大會』, 『동아일보』, 1946.6.19.

2) 이상봉, 『휴머니즘을 들어 指導者에 提言 上』, 『동아일보』, 1946.4.5.

3) 신영철, 『朝鮮語「辭典」出版論』, 『경향신문』, 1947.1.4.

4) 『理性을 잃지말자』, 『동아일보』, 1953.6.14.

각종 총서류/번역전집 및 선집류, 그리고 문고본시리즈와 같은 출판물의 급증이라는 현상과 연동”<sup>5)</sup>하면서 교양의 내용은 다양해졌다. 당시 『한국문학전집』<sup>6)</sup>과 『학생을 위한 서양문학감상』<sup>7)</sup>과 같은 문학서 외에도 『교양신서』<sup>8)</sup>, 『사상교양문고』<sup>9)</sup>, 『신세계문고』<sup>10)</sup> 등 많은 수의 전집이 출간되었다. 이들은 교양이라는 이름 아래 문학, 처세, 상식, 철학 등의 내용을 구성해나갔다. 특히 1950년대 “全集刊行 “붐”은 마치 出版界의 루네쌍스”<sup>11)</sup>로 보였듯이, 많은 잡지 발간과 전집류 교양서들이 출간되었고 대중의 덕목으로 ‘교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 대학제도가 형성되면서 전문적인 엘리트가 양성되었고 이들이 향유하는 교양의 개념은 대중의 교양 개념과 구별되기 시작했다. 대학 내 엘리트 지식인들은 교양교과목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즘적인 영역을 형성하였고, 일반 대중은 독서, 글쓰기, 꽃꽂이 등 취미 영역의 교양 개념을 형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교양의 영역은 교양을 수용하는 독자에 의해 세분화되었고 “엘리트 지식인, 대학생, 여성”<sup>12)</sup> 등 수용 주체에 따라 교양의 내용은 변모되기 시작했다. 여성교양 역시 이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교양은 “경작’ ‘교육’ ‘형성’을 뜻하며 결코 자명한 규범 혹은 이상, 영구불변의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교양은 시공(時空)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조각탁마(彫刻琢磨)되고 자기변모를 거듭”<sup>13)</sup>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사회구성원을 규정하는 혹은 강요하는 자질과 형식을 말한다. 교양은 공

5) 소영현, 『교양론과 출판문화』, 『현대문학의 연구』 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8쪽.

6) 민중서관 편, 『한국문학전집』, 민중서관, 1959.

7) 윤백 편, 『학생을 위한 서양문학감상』, 대건출판사, 1955.

8) 신양문고 편, 『교양신서』, 신양문고, 1959.

9) 상구문화사 편, 『사상교양문고』, 상구문화사, 1958.

10) 진문사 편, 『신세계문고』, 진문사, 1954.

11) 『整理一九五八年 集大成刊行物の「붐」』, 『경향신문』, 1958.12.14.

12) 소영현, 위의 글, 11쪽.

13) 이광주, 『교양의 탄생』, 한길사, 2009, 10쪽.

동체가 공유하고 승인한 제도적 가치라는 점에서 자아의 위치와 계급을 확정하는 배제의 폭력성을 내포한다. 교양이 함의한 보편성, 이성, 합리성의 의미는 줄곧 주류사회 남성을 상징했고, 이를 전제로 여성, 인종 등을 타자화했다. 따라서 최근 교양담론에 대한 연구 경향 역시 ‘정상적인 것’의 의미를 형성해나가는 정치적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었다.<sup>14)</sup>

‘여성교양’ 담론에 대한 기존 논의 역시 ‘정치적 무의식’의 관점에서 고찰되어 왔다. 여성교양과 관련된 논의들은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성에 대한 왜곡과 소거(掃去)의 작동원리를 고찰해왔다.<sup>15)</sup> 특히 국민국가가 건설되고 여성 교육이 시작된 미군정부 1950년대는 여성 동원의 문제점이 가시화되었으며,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자들은 여성이 사회적으로 형성·유포되는 과정에 착안하여 여성성의 특성이 자연화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논의해왔다.

그간 논자들은 여성교양 담론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家庭)으로 고정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한계를 비판해왔다. 당시 가부장적인 통제나 계몽적인 여성 교육의 측면은 여성지(女性誌)를 매개로 공론화되었으며, 여성교양 담론 연구 역시 여성잡지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아왔다.<sup>16)</sup> 여성지는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여성 이슈를 사회화하지만,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호명하는 한계 역시 내포했다. 여성지는 ‘현모양처’ ‘에티켓’ 등의 표상을 통해

14) 이에 대한 논의로는 허병식, 『한국 근대소설과 교양의 이념』,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2006, 박숙자, 『속물교양의 시대』, 푸른역사, 2012 등이 대표적이다.

15) 이에 대한 논의로는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 『여성문학연구』 2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송인화, 『1950년대 지식인 여성의 교육과 기독교』, 『한국문예비평연구』 3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이선미, 『1950년대 여성문화와 미국영화』, 『한국문학연구』 3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등이 있다.

16)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3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 연구모임, 『여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8; 강소연, 『1950년대 여성잡지에 표상된 미국문화와 여성담론』, 상허학회 편, 『1950년대 미디어와 미국표상』, 깊은샘, 2006 등이 있다.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공론화된 제한적인 여성교양 개념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왔다.

여성교양 담론 연구가 주로 여성 매체를 통해 담론화된 여성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그간 교양을 내면화한 여성 주체의 실질적인 발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여성교양 담론에 대한 발화자가 남성필진 중심이라는 한계를 논의해왔지만, 남성 편집자 외에 1950년대 여성지를 통해 구체화된 여성교양 담론은 “미국의 선진적 제도와 문화를 적극 수용한 문화엘리트들의 주도”<sup>17)</sup>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고향경, 김활란, 모윤숙, 박마리아, 박순천, 이해은, 전숙희 등으로 정치, 사회, 법률과 같은 여성 사회 문제의 권위자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담론화하는 자리에 호명되었던 여성 논자들이다. 이들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위를 부여받으면서 여성교양 담론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여성 인사들은 여성 교육을 수용하면서 고유의 여성성을 형성하였고, 시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여성교양’의 자질을 내면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담론을 생산해내었다. 이 과정은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과정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여성교양 담론 연구는 여성 인사의 개별적 논의는 뒤로 한 채, 여성교양의 계몽성 혹은 고정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교양 개념에 집중해왔다. 여성교양 담론 연구는 여성을 재구성하는 정치적 작동원리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이지만, 다층적 관계망 속에서 재구성되는 여성성의 문제가 일관되게 왜곡된 여성주체로만 환원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여성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은 남성 논자들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소외되기보다, 그 과정에서 여성 발화자의 동조, 적극적 수용 혹은 남성사회에 대한 전복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남성에게 의해 왜곡된 여성주체로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을 확정짓는 것은 남녀의 사회적 위치를 고정시킨다는 점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여성교

17) 김윤경, 앞의 글, 149쪽.

양 담론이 생성되는 여러 맥락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논의가 생산될 것이다.

‘여성교양’은 당시 여성 필진들의 중심주제이기도 했다. 이들은 각각 여성교양의 개념을 확정하면서 차별화된 여권 신장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 필진에 대한 개별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자료집 역시 선집에 그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연구나 토대 연구 역시 미진한 상태다. 따라서 여성 논자들의 개별적인 목소리 연구에 기초하여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고는 해방기부터 왕성히 활동해온 정충량의 논의를 토대로 여성교양 담론의 한 측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정충량은 1948년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로 가정란을 맡아 여성의 담론을 사회화한 장본인이며, 1962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상임이사과 부회장, 1968~1985년 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이었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언론계와 학술계에서 활동한 여성 대표 논자였다. 특히 한국여기자 클럽 초대회장이었던 정충량은 당시 조경희, 박현서, 정광모, 그레이스 김 등 현역에서 활동하는 여기자들을 조직하여 여성 언론인 담론을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sup>18)</sup> 또 해외 여러 나라를 시찰하면서 여성인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많은 수의 글을 남겼다.<sup>19)</sup> 이 외에 도시 주부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사적 고찰과 관련된 연구논문도 집필했다. 또한 6권의 저서를 출간하였고 여성관련 평론 활동을 왕성히 해나갔다. 정

18) 김영희, 『정충량 1916~1991:최초의 여성 논설위원 여기자클럽 창설 주도』, 『신문과 방송』 458호, 한국언론재단, 2009.2, 114쪽 참고.

19) 1959년 미국여성단체가 현상 모집한 논문에 당선되면서 1960년 5월 방미, 이후 미국무부 초청으로 3개월간 미국을 시찰했고 이후 UPI 통신사 후원으로 유럽, 중동, 동남아 등 20여 나라의 신문제도와 여성 활동을 둘러보았다. 또한 1969년과 1971년 세계 여기자 작가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면서 필벽, 장제스 총통부인, 필리핀의 가르샤 여사 등과 단독회견을 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발표했다.(김영희, 위의 글, 116쪽 참고.)

충량은 여성단체, 기자, 평론가, 교육자 등 많은 활동을 통해 여성담론이 생산되는 과정에 직접 관여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1958년에 출간된 정충량의 첫 평론집 『마음의 꽃밭』은 1950년대 다양한 매체에 기고했던 평론을 모은 저서다. “韓國의 唯一한 女性評論家인 鄭忠良女史는 評論을 通하여 千五百萬女性의 意思를 代辯”<sup>20)</sup>했다는 신문 광고처럼, 이 저서는 정충량이라는 사회 평론가 개인의 왕성한 활동의 결실이자 여성 담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낸 저서라는 점에서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의 한 측면을 가늠하는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1950년대와 정충량의 여성교양 담론의 차별성을 논의하기 위해 2장에서는 여성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계몽적인 형태의 1950년대 일반적인 여성교양 담론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적극적인 여성성을 강조했던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 2.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동아시아 전반에 가축국가 건설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다. 이는 가축과 국가를 동일한 논리로 해석하는 것으로 “국가와 가축, 정치와 자연, 그리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분리하는 근대국가”<sup>21)</sup>를 이상화하는 것이다. 국민국가에서 여성의 위치를 확정하고 여성을 국가에 동원하기 위해 남성 질서에 순응하는 계몽적 관점에서 여성 교육은 조직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외세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몽주의’라는 서구의 개념”<sup>22)</sup>을 받아들였고, 이는 차별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을 전제한 여성 교육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이 범주 안에서 여성담론은 형성되었고 국가 혹은 남성과는 상이

20) 『唯一無二한 女流評論家 鄭忠良評論集』, 『경향신문』, 1959.4.6.

21) 한국여성연구원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2, 5쪽.

22) 위의 글, 34쪽.

한 역할을 자연화시켰다.

당시 여성의 삶을 훈육하고 체제순응적인 여성을 만드는 교육적 측면의 기능은 ‘강습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 주류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차선적인 형태의 교육제도로 강습회를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취미나 직업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들을 교육받았다. 당시 강습회는 여성단체들의 주요 계몽 사업으로, 많은 강연이 반복적으로 개최되었고, 여성들의 반응 역시 적극적이었다.<sup>23)</sup> 1958년 한 해에만 서울부녀과, 대한어머니회, 여원사, YMCA, 한양여성 클럽 등 대부분의 여성 단체에서 교양 강좌가 개최되었다.<sup>24)</sup> 강습회는 직업, 취미 등 여성의 직접적인 삶을 관장하면서 훈육을 담당했으며, 여성교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했다.

여성교양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 ‘바른 여성’을 육성하는 강연회의 내용은 대부분 요리, 미용강습, 꽃꽂이 등 가정 영역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었다. 이는 여성의 미덕이나 여성의 고상한 취미이다. 이 외에 여성과 법률, 국제정세, 어머니의 권리나 외국어 교육 등 고등교육 관련 강연회

23) 이에 대해 『新 女性文化講座 第二講回 西洋料理講習會』(『경향신문』, 1947.8.24.)에 보면 “본사문화부주최신여성문화강좌第一回 화장 강습회는 앞서예기이상의성과를 견우고 마치었는바 계속해서 第二回로 서양요리강습회를 열기로 되었습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후 3회 강습회에 대한 후일 기사를 보면 “신청은되도록빨리하심이 좋을것같습니다 전번의 예문보아서도 일시안에벌써 정원이되어 많은분들을섭섭히도 거절하게되었는데”(『本社文化部主催 新女性文化講座 第三回 洋裁習得은現代女性的의任務』(『경향신문』, 1947.10.12.)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해방 이후 이루어진 강연회 사업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주요 교양 사업으로 인지되어 왔다.

24) 이에 대한 논의로는 『整理 1958年 여성』(『경향신문』, 1958.12.20.)와 『넓고 깊어진 활동面 女性團體 上·下』(『동아일보』, 1958.12.18-19.)이 있다. 1958년은 여성계나 여성 개인의 활동이 두드러진 해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부녀과 주최의 ‘여성금요강좌’가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되었으며, 대한어머니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 영화감상, 무료진찰 등을 열었다. 가정학회에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회를 열었으며, 대한부인회 산하 대한소년단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취미 강연을 주도했다. 대한여자학사협회 역시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였고, 여원사 주최 교양강좌에서는 미용, 요리, 양재 등의 강연이 있었으며, 김인순, 이옥선 여사의 생화연구소와 조화연구소에서는 꽃꽂이 강연을 열었고, 이 외에 요리학원, 미용강습, 영어, 불어 등도 강연하였다.



역시 현명한 여성이 갖춰야 하는 상식선의 내용을 교육하였고 취업과 관련된 단순 기술 습득에 주력했다. 여성의 취미를 권장하고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당시 강연회를 통해 형성된 여성교양의 개념은 가정의 영역에서 여성이 갖추어야 할 미덕으로 유추된다.<sup>25)</sup> 여성교양 담론은 교육을 통해 남성사회에 여성을 동원하는 것으로, 여성의 미덕과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이들은 여성에게 교양이라는 이름하에 의복, 육아, 위생, 요리 등 가정에 한정된 기술을 훈육하면서 ‘여성교양’의 의미를 형성해나갔다. 따라서 1950년대 여성교양의 자장 아래 교육받은 인텔리 여성들 역시 여성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혹은 딸로서의 역할에 한정된 주체화 과정을 이루었으며, 교양에 대한 학습 과정 역시 남성의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했다. 이상적으로 가정을 관리하고 가정을 민주화하는 ‘현모양처’가 교양 있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임무이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개성이었다. “가정의 母體는 아무리보아도 주부이다...(중략)...이것이야말로 영원히 확보된여성의 지위 누구나흠모할만한 최고의 지위”<sup>26)</sup>인 것이다. 남성과 상이한 성별 분업을 이루어낼 때, 여성은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었고, 이는 체제 순응적이고 제한적인 여성 주체를 만들어 냈다.

1950년대 여성교양은 ‘강습회’라는 교육장을 매개로 일반 여성의 내면을 형성하였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자연화하는 훈육의 성격을 드러냈다. 따라서 주류 교육에 편입할 수 없었던 많은 여성들은 강습회라는 여성교육을 통해 청교도적 행동 양식을 부여받았으며, 사회가 부여한 이상적인 여성교양의 모범을 습득해나갔다. 사회 관습을 수용했던 대중 여성교양

25) 당시 여성단체 활동 역시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었다. 위 기사에 강연회 외에 결혼상담소, 법률상담소, 미망인 구제, 자녀교육, 가정 경제지도, 가정불화, 자녀교육, 빈곤층 여성 구제 등 여성단체의 활동은 주로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테두리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26) 홍복유, 『韓國의 家庭과 主婦의 位置』, 『동아일보』, 1958.1.24.

은 ‘부녀자교양’이라는 내면을 형성하면서 모범적인 행위 규범을 만들어 나갔다.

### 3. 남성 ‘동화(同化)’적 여성교양론 -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

1950년대 사회제도가 안정화되고 교육받은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여성관도 변모하기 시작했다. 당시 여성과 남성의 세태를 비판한 연재기사는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들의 결혼관, 남녀 차별을 일삼는 남성, 화장을 통해 본 여성의 도전정신 등을 논의하면서 당시 변모하는 남성관과 여성관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결혼에 있어 남성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때 “輕薄한結婚觀”<sup>27)</sup>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女性을 對하는데 먼저같은 人間이라는것을 分明”<sup>28)</sup>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남녀평등에 대한 시각은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의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女性들이 街頭로進出하고 女長官, 女兵士 女巡警이나와 男性을어엿하게 支配하고 參政權을가진 世上이고보면果然는부실지경입니다참으로이려고 보면 女性의美라는것이 春香式的 『반만웃는』 『부끄러움』에 있는것이 아닌상습니다”<sup>29)</sup>라는 표현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오히려 더 우수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여성상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

특히 『직장여성』(1950)을 발간하여 ‘직장여성’을 훈육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으며, ‘지식인’으로서 여성 졸업자의 처우 문제도 자주 언급되었다. “젊은 여성들을 굳세게 바르게 또한 몇 번 쓰러지면서 배움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시민으로서 배운 학문과 인간으로서 지킬 인격을 쌓고 나가는 것”<sup>30)</sup>이라는 입장은 공적영역에서 여성이 활동해야 하는 당

27) 강성일, 『三十代呼吸의交流-男性에게』, 『경향신문』, 1954.1.1.

28) 조중환, 『三十代呼吸의交流-男性에게』, 『경향신문』, 1954.1.4.

29) 윤길구, 『三十代呼吸의交流-女性에게』, 『경향신문』, 1954.1.4.

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공적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었다.

1950년대는 사회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엘리트 여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성상이 형성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당대 여성 논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성에 대한 논의들을 이끌어 나갔다. “여성은 인간이 생길 때부터 생명의 모태로 사랑과 희생, 평화의 상징”<sup>31)</sup>이라고 논의한 모윤숙은 사회에서 부여한 고정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이명운은 “賢母良妻를 目的으로 한 一種의 家庭 女塾式的 教育”<sup>32)</sup>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여성교육의 한계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위해 기존 논의를 전복하고자 했다. 박마리아의 경우 “우리 여성들은 자각하고 바른 정신으로서 역사발전에 크게 공헌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속덕(淑德)을 높이 쌓아야”<sup>33)</sup>한다는 것으로 국가 체제로 환원되는 여성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 참여했던 여성 논자들은 규범을 수용하거나 전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여성상을 생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교양 담론 전개에 토대를 마련했다.

여성교양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생성되는 가운데 정충량 역시 적극적으로 여성담론 형성에 참여하였다. 정충량은 여성논자로는 드물게 사회 평론집을 여러 권 출간했으며, 그 대표적인 저서가 『마음의 꽃밭』(1958)이다. 이 저서는 김활란 교직근속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펴낸 『여성문화논총』<sup>34)</sup>과 박마리아의 『여성과 교양』과 더불어 195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관련 저서이다. 『여성문화논총』은 여성과 관련된 종교사, 교육사, 문학사, 음악사, 미술사 등을 정리한 책으로 여성사 연구에 있어

30) 주영하, 「社會는 새卒業生들에게 일을 주어야 한다」, 『여원』, 1958.3, 48쪽.

31) 모윤숙,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모윤숙 문학 전집2』, 성한, 1986, 290-291쪽.

32) 이명운, 「韓國과 女性의 生活問題」, 『여성계』, 1952.11.(구명숙, 『한국여성수필선집』, 역락, 2012, 245쪽. 재인용.)

33) 박마리아, 『여성과 교양』,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55, 48쪽.

34) 김활란박사교직근속4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여성문화논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58.

중요한 자료이며, 『여성과 교양』은 여권, 모권, 인생관 등 훈육 대상으로 본 여성 주체에 대한 글로 박마리아의 개인적 이야기가 담긴 수필 형태의 저서다. 이에 반해 정충량의 저서는 여성 관련 사회 비평집으로서 1950년대 여성담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대상이다. 그의 첫 번째 평론집인 『마음의 꽃밭』은 1958년 4월부터 6개월간 『여원』에 연재한 ‘마음의 꽃밭’에서 차용된 제목으로 이 연재물 외에 『여성계』, 『연합신문』, 『해군』, 『동아일보』 등 다양한 매체에 수록되었던 자신의 평론을 모아놓은 저작이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정충량의 저서는 여성의 삶, 전쟁, 사회, 정치·농촌, 직업, 가정, 연애, 결혼, 남성, 교양, 모랄, 모성을 주제로 여성이 속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있다. 여성 개인의 삶에서 시작된 이 저서는 부녀도, 열녀, 모성 등 가정 내 여성의 모습에서 직업여성, 전쟁 피해 여성, 여성 법제도, 여성단체 등 사회에 속한 여성의 모습으로 확장된다. 개인과 가정을 넘어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을 논의하는 문제의식의 확장 과정은 복합적인 층위의 여성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정충량 저서의 특징은 정치, 사회, 문화, 농촌 등 사회 구조의 모순 속에서 배태된 여성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이다. 여성문제를 사회적 이해관계 속에서 해명하는 것은 사회학적인 태도에 근간한 진일보한 논의 과정이다. 이 저서의 방법론은 서문에 제시되어 있듯이, “여성문제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사회과학의 대상으로 연구하여 체계 있는 계보(系譜)”<sup>35)</sup>를 논의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 비극의 원인이 “사회제도의 의결함과 함께 여성이 몽매”(5)함에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이라는 대상이 비판, 동정 혹은 훈육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정충량의 저서는 사회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비판하고, 소외계층의 하나인 여성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확장하는 사회학적 태

35) 정충량, 『마음의 꽃밭』, 서울고시학회, 1958, 5쪽.(이후 참고 및 인용은 페이지 표기로 대체함)

도를 보여주었다. 소외계층의 삶이 정상화되어야 “균등하고 조화된 사회”(5)가 될 것이며, 이것이 넓은 의미의 남녀평등의 사회가 됨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거시적인 차원의 여성문제를 논의하였다.

정충량 저서의 두 번째 특징은 사회학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실증적인 방법론을 차용했다는 점이다. 미망인, 고아, 군인들의 현황을 조사하거나 이들의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문제점을 데이터화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였다. 세계 각국의 전쟁미망인의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현 국내 전쟁미망인 수치를 집계하여 좀 더 설득력 있는 논의과정을 보여 주었다. 여성의 범죄율을 토대로 여성 윤리의 문제를 논의하거나, 농촌 인구나 노동시간의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 계몽의 중요성을 방증하기도 하였다. 여성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과 수치적인 근거를 통해 사회적으로 등한시했던 여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충량은 실증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미망인의 재혼문제, 평등적인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혼혈아, 전쟁고아, 군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인권과 복지 문제를 고찰했다.

이외에도 정충량의 저서는 당시 여성문제에서 도외시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여성 삶에 미칠 영향력, 선거의 의무 등을 통해 공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논의했으며, 가사노동의 평등성, 여성의 성적 욕망, 남성과 여성의 성 평등, 남성 정조론 등 여성성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 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여성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이루어낸 중요한 저작이다.

구체적으로 정충량의 저작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의식은 ‘남녀평등’이다. 여성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한 정충량의 저서는 사회, 문화, 가정 내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이 ‘남녀평등’의 상태임을 반복적으로 시사한다. 이때 ‘교양의 문제는 사회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정충량은 “나서부더의 인간된 권리가 평등해야 한다는 UN헌장에 기대지 않더라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현대문화를 분배받는 수혜자(受惠者)여야 할 것은 물론 여성이 깊은 지식과 높은 교양을 지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정신(自律情神)을 가져야”(5-6)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교양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근본적 자질이자, 여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간을 이루는 핵심어이다.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어떤 특권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모순(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여성의 사고(思考)를 부조리(不條理)하게 만드는 직접 동기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남녀평등의 실질적 향상(向上)을 쪼먹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중략)...과거의 여성이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윤리도덕(倫理道德)에 갇잡힌 것이 여성의 전진 발전을 방해하였듯이 오늘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놓인 우리 사회에서 성(性)에 기대어서 자기본질 이상의 수확을 건우려는 안이(安易)한 생활관(生活觀)은 여성의 후퇴(後退)를 시키기에 알맞은 것입니다. 성에 기대어야 한다는 일은 투쟁보다 안이를 전진보다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중략)...남성들과 실력(實力)으로 대결(對決)하는 투쟁태세(鬪爭態勢)만이 올바르게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17-18)

위에서 언급한대로 여성의 ‘특권의식’은 남녀평등의 실질적인 실천을 방해한다. 사회생활의 이해관계 속에 여성을 약자로 전제하고 배려한다면, 평등한 구조는 무너지고 남녀평등의 사회적 체계는 불가능해진다. 오히려 남성과의 대결 의식 속에서 동등한 사회활동과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 ‘남녀평등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여성의 ‘안이한 생활관’은 봉건주의로 퇴보되고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남녀평등은 남성에 대한 대결 의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쟁취하고 남성과 동일해져야 하는 의지를 통해 가능해진다. 여성의 강한 투쟁 의식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학자 보다 적극적인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이 아내의 자격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비극이 벌어져도 자신(自信)을 가지고 자신(自身)을 주장하는 내용(內容)과 용단과 자유(自由)를 쟁취하려는 의기(意氣), 이런 것이 곧 여성의 인간바탕을 구성될 때 여성은 굳건하고 동시에 전진(前進)하는 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면을 갖춘다는 일은 지식과 교양을 높이는 일과 같이 중한 일이겠습니까. (40)

‘여성의 전진’을 강조하는 남녀평등론은 여성교양의 내용 역시 남성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여성교양의 이상적인 형식은 자기주장이 가능한 내용, 의기와 자존감, 굳건함과 전진 등 강하고 이성적인 상태로 묘사된다. 여성의 가치를 높이고 남성과 동등해지는 길은 ‘지식과 교양을 높이는 일’을 통해 가능해진다. 남녀평등은 남성과의 경쟁의식에서 형성되며, 남성과의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 그 이상적인 상태는 ‘의기’, ‘굳건’한 행동양식으로 발현된다.

모든 사물을 알고 지키는 침묵은 더욱 큰 매력이며 남성적 무게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매력을 이루는 큰 요소가 될뿐 아니라 또한 그이 위엄을 장식하는 좋은 바탕이 된다...(중략)...남성의 매력은 「힘」이 근원이 되어 그것이 깊은 지식에 뿌리박고 외부에 나타날때는 우아(優雅)한 것으로 변모되어 그의 인격을 구성할때 처럼 강한 매력은 또 없을 것이다.(229-232)

정충량의 저서에 등장하는 남성관은 강함과 이성으로 요약된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이성적인 직관력과 강한 힘을 상징하는 위엄은 남성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하면서도 이성적인 남성의 모습은 ‘자존감, 주장의 확고함, 자유의지, 전진’ 등으로 설명되는 여성교양의 개념과 대응된다는 점이다. 여성교양의 이상적인 형태는 곧 남성과

동일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지성미(知性美)”(19)로 함축된다. 여성의 건강한 사고와 행동은 이성적인 태도에서 배태되며, 이는 남성과 동일한 가운데 생성된다.

여성의 지성미는 남녀평등의 균형을 지속하는 핵심 요인이며 여성의 삶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질로 요약된다. “교양이 없고 무식하고 허세”(19)를 부리는 여성은 민주주의에서 남녀평등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여성의 특권의식이 강한 여성은 “지성미가 거세된 꼭두각시”(19)와 같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여성 범죄율이 증가하는 1950년대 사회문제의 원인 역시 여성의 “무식과 무교양”(103)으로, 남녀평등 혹은 여권신장의 중요한 자질은 여성의 교양이 충만한 지성미가 발현되는 상태이다.

여성의 지성과 교양이 충만한 상태는 “주위의 고무한 인습을 타파하고 곳곳하게 독립하려는 건강한 의지미(意志美)”(19), “자기를 적당히 내세울 줄 아는 지성(知性)”(40) “생각한바를 이행하려는 이성을 지닌 굳건한 주관”(296) 등으로 요약된다. 적극적인 현대여성의 이상적인 상태는 ‘굳건’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이성적이고 강한 상태이다. 곧 지식과 힘을 근원으로 하는 ‘강한 매력’의 남성은 곧 여성교양이 충만한 상태이다. “만일 남자와 똑같이 복장(服裝)을 하고 어려서부터 공부나 오락(娛樂)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교육시킨다면 결코 지능(知能)이 남자에 떨어질배 없다.”(189)라는 설명은 남성과 여성이 지능이 동등함 즉, 능력의 동일함을 역설하는 대목으로 남성과의 대결의식을 가진 정충량의 논의를 잘 보여준다. 여성의 교양은 남녀평등의 실현을 가져오며 이는 남녀가 절대적으로 동등할 때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남성과의 대결의식은 남성과 동일해지려는 욕망으로 드러나며 여성의 이상적인 상태를 남성화하였다.

따라서 정충량의 저서에서 가장 부정적인 대상은 “특권의식”(14)을 갖은 의존적인 여성이다. 이때 여성의 문제점은 의지 부족과 남성 의존성에 있다. “약한 여자니까 그냥 두자는 이런 대접은 여성에게 일종의 모욕”(17)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성과 동일해져야 하는 독립적인 여성상을 강조했다. 정충량은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녀 불평등에 있으며,



이 현상의 원인은 여성의 의존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위해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사회 활동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강한 여성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녀평등의 문제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교양의 자질을 습득할 때 가능하다. 이와 같은 ‘동화’<sup>36)</sup> 모델은 여성의 적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여성주의적 논의를 이끌어낸다. 정충량의 남녀평등의 개념은 여성의 의존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남성들과 실력(實力)으로 대결(對決)하는 투쟁태세(鬪爭態勢)만이 올바르게 여성의 지위향상을 가져”(18)온다는 대결 의식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남성과 동일한 여성이라는 적극적인 여성성을 생산해내었다.

1950년대 ‘현모양처’를 강조했던 “여성교양과 지식은 성별 역할분담론에 정확하게 고착되어 있으며, 여성의 차이는 남성들의 보편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sup>37)</sup>이었다. 여성은 계몽의 대상이거나 남성에게 비해 하위 주체적 존재였다는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여성의 행동 양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남성과 동일한 여성이라는 동화적 태도는 남녀의 관계를 갈등양상으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성별 이분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같은 점은 정충량의 성별 의식에서도 드러난다. 적극적인 여성

36) 리틀톤의 법적 대칭 모델인 ‘동화’의 개념은 여자가 실제로 남자와 똑같으며 그리고 똑같을 수 있다는 관념이다. 대칭 모델은 성역할을 타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지만, 모두에게 익숙한 남성을 표준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리틀톤의 말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행동 양식을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한 그들은 냉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남성의 행동 양식을 따를 때, 그들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남성으로서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논한다. 즉 이와 같은 대립적 사고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고정불변하게 보이거나, 남녀의 변화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남녀의 갈등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캐롤 타브리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테리아 역, 또 하나의 문화, 1999, 98-116쪽 참고.)

37) 김복순, 앞의 글, 20쪽.

성을 강조했던 정충량은 성별분업의 사고체계를 용인한 남성적 시선을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는 여성과 남성의 선척적인 구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남성이 주로 활동의 분야를 가정 밖에 둔 반대로 여성의 활동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성들의 감정은 섬세하고 수동적이 되기 시여성은 반대면에 위치한다.”(189)는 정충량의 논의는 남녀 역할을 고정적이고 태생적인 성별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고는 2장 ‘전쟁’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전쟁은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가지적으로 구분한다. “남성이 강철같은 의지와 힘으로 나라의 기둥이 된다면 여성은 사랑으로써 이들을 지키며 생활을 조화”(69) 시킨다는 정충량의 안보 의식은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정충량은 “여성의 영역(領域)이 가정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인 모양으로 역시 여성이란 남성과 구별”(190)지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충량의 논의는 남성과의 대결 의식 속에서 강한 여성성을 강조하였지만, 여성성을 제한하는 남성의 시선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 저서에 묘사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교양을 갖춘 어머니의 모습 이외에도 “세련된 성”(31)과 “썩썩”(30) 즉, “여성의 육체의 강약”(30)과 같은 여성미도 포함되었다. 이상적인 여성은 교양을 갖춘 사회인이어야 하고, 남성과의 대결의식을 갖추어야 하면서도 “여성다운 기질을 상실”(146)하지 않고, 여성적인 육체를 가진, 직업여성이어야 한다. 이성적이면서도 보조적이며 평화주의자인 교양 있는 여성의 모습이란 “남성이 고안한 여성의 원형적 이미지”<sup>38)</sup>에 가까우며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유사하다.

정충량이 논의하는 여성교양은 현모양처이자 독립적인 여성이 가져야 할 전제조건이다. 이외에 교양 있는 여성은 이성적인 민주사회 구성원인 동시에 현명한 어머니이며, 남편의 현명한 내조자이자 남성과의 대결의식이 강한 독립적인 여성이기도 한 혼종의 의미로 사용된다. 1950년대 남녀

38) 캐롤 타브리스, 앞의 책, 80쪽.

의 위계질서를 수용한 일반적 여성교양 담론의 시대에, 정충량은 여성의 사회적 영역을 확장하고 남녀평등을 위한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며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여성교양 담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테두리 안에 허용된 여성의 역할을 수용하여 기존 체계에 규율과 타협하는 남성 동화(同化)적 시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의 한계 역시 보여주었다.

#### 4. 결론

국가의 정치와 경제 등 이데올로기가 재편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사회체제의 지형도를 변모시켰다. 특히 전쟁 이후 남성의 부재는 가정의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위계질서가 변화되었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치가 표면화되었다. 사적 영역의 가정을 여성의 공간으로 확정지으면서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한하는 새로운 가족 윤리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는 여성의 사회 참여 범주를 규정하거나 여성 노동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담론화하는 등 여성을 사회적인 의미로 재규정해 나가는 시기였다.

여성의 사회화 과정은 ‘가정’에 한정되었으며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여성성을 제한해 왔다.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여자의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크게 영향되는 것이다.…(중략)…외국의 여성은 이미 이러한 어려운 여러 가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 가정을 명량하게 만들고 나라를 행복스럽게 또는 평화스럽게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sup>39)</sup>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는 행복과 가정을 만드는데 있으며, 이것이 곧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여성의 교양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정 내에 머물면서 ‘부녀자’로서의 자질로 설명되어 왔다.

39) 최준, 『여성의 아름다움은 교양미에 있다』, 『새가정』 168집, 새가정사, 1969, 27쪽.

그러나 정충량은 여성교양의 개념을 어머니 혹은 아내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았다. 여성교양은 남성과 동등해지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성숙한 이성적 자아를 완성하는 중요한 핵심어였다. 정충량의 여성교양은 남성과의 대결구도 속에서 남녀평등을 논의하는 남성 ‘동화’적 성격으로 요약된다. 이는 여성의 의존적인 성격을 비판하고 사회에서 남성과 동일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적극적인 여성교양 개념을 의미한다.

“저같이 혼자 있는 사람은 피해가 많아요. 말한마디 예사롭게 하는데도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비겁해지고 소심해지고 순수하게 되지 않아요.”<sup>40)</sup> 박경리가 말한 미망인이 가진 사회적 중압감은 당시 엘리트 여성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을 잘 말해준다. 당시 교육받은 엘리트 여성들은 사회에서 제안한 역할을 수용하고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한정했다. 미망인으로서의 자신을 단속하고 여성으로서 공적영역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받아들이는 등 사회에서 제안하는 여성성의 범주에 맞추기 위해 엘리트 여성들은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불안에 사로잡혔다. 남성과의 대결의식을 강조하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강조했던 정충량 역시 부녀자로서의 여성성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충량의 여성교양 개념은 당시 엘리트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가정으로 회귀되는 1950년대 여성교양 담론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0) 박경리·한무숙 대담, 『文學을 하며 산다는 것』, 『여원』, 1958.4, 176쪽.

## 부록

## 정충량 서지

## 저서

『마음의 꽃밭』, 서울고시학회, 1958.
『어둠을 뚫는 소리』, 학원출판사, 1977.
『女性和 에티켓』, 삼중당, 1964.
『守門將의辯』, 학원출판사, 1977.
『文明의 얼굴, 未開의 얼굴』, 학원출판사, 1977.
『에티켓. 趣味 娛樂. 스포츠』, 범한출판사, 1981.

## 논문

정충량 · 이효재, 「女性團體活動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4집, 이화여자대학교, 1969.
정충량 · 이효재, 「都市主婦生活에 관한 實態調査-中流家庭을 中心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6집, 이화여자대학교, 1970.
정충량 · 이효재, 「日帝下 女性勞動者 就業實態와 勞動運動에 관한 研究」, 『한국문화연구원논총』, 22집, 이화여자대학교, 1973.
정충량, 「獨立新聞이 開化期 女性的 教育 啓發, 振興 및 社會參與에 미친 影響에 關한 研究」, 『한국문화연구원 논집』, 26집, 1975.

## 평론

「젊은 동무들에게」, 『신가정』, 1935. 11.
「戀愛 · 結婚 · 生活上 · 下」, 1949. 12. 17-18.
「마음의 봄」, 『경향신문』, 1950. 2. 15.

『女性の 娯樂과 趣味』, 『부인경향』, 1권 7호. 1950.7.
『女性에게 動亂이 가져온 것』1-5, 『경향신문』, 1953. 10. 26- 11. 3.
『그리운 얼굴들 一九三七年의 『고요한밤』』, 『경향신문』, 1954. 12. 25.
『職業女性과 家庭問題』, 『협동』, 통권 48호. 1955. 4-5.
『전쟁미망인의 行路』, 『동아일보』, 1955. 6. 26.
『주택유감』, 『동아일보』, 1955. 11. 1.
『被拉人事問題 하루바삐 가족의 품안으로』, 『경향신문』, 1955. 11. 24.
『송연보기적은 없었다』, 『경향신문』, 1955. 12. 29.
『戰爭未亡人の 未來』, 『새벽』, 1956.3.
『왜 現代人은 映畫에 魅惑되나』, 『여원』, 1956. 4.
『독백』, 『경향신문』, 1956. 4. 11.
『어머니의 사랑』, 『경향신문』, 1956. 5. 9.
『幸福의 源泉으로서의 女性의 歡喜』, 『여원』, 1956. 8.
『남량좌담 여름밤의 꿈』上·下, 『경향신문』, 1956. 8. 1-2.
『가정을 가진 주부도 딴 남성에게 호기심을 갖는가』, 『여원』, 1956. 9.
『女性의 地位는 向上되었는가 : 民主主義의 韓國的 反省』, 『자유춘추』, 1957. 2.
『배리의 염원』, 『경향신문』, 1957. 2. 14.
『自由와 함께 責任이 커졌다』, 『여원』, 1957. 8.
『구수한 人間味를 잃는 건 싫다』, 『여원』, 1957. 9.
『新春』, 『자유문학』, 1958.4.
『女性과 意味』, 『여원』, 1958. 4.
『國民權利와 國際郵便物事件』, 『한국평론』, 1958. 5.
『마음의 꽃밭 : 女性自身の 生活을 갖자』, 『여원』, 1958. 5.
『生活樣式의 調和·整頓 : 마음의 꽃밭』, 『여원』, 1958. 6.
『女性이란 이름위에서 세워지는 幸福 : 마음의 꽃밭』, 『여원』, 1958. 7.

『回想의 明沙十理』, 『자유문학』, 1958.8.
『生活은 素朴하게 思索은  높게(마음의 꽃밭)』, 『여원』, 1958. 8.
『座談會 : 食母 / 鄭忠良 ; 林敬愛 ; 石宙善 ; 崔貞得』, 『여원』, 1958. 8.
『主張을 시키는 勇斷(마음의 꽃밭)』, 『여원』, 1958. 9.
『祖國의 異邦人』, 『사상계』, 1958.10.
『主婦가 같이 별도록 하자』, 『여원』, 1958. 11.
『均衡잡히지 않은 夫婦의 境遇 : 相對에게 나를 沒入시키는 精神으로』, 『여성계』, 1958. 11.
『國家保安法改正案에 異議 있다』, 『여원』, 1959. 1.
『人間廢業』, 『자유문학』, 1959. 3.
『얼굴』, 『자유문학』, 1959. 6.
『未亡人의 誘惑 · 再嫁 · 딸린아이』, 『여원』, 1959. 6.
『황혼병자에게』, 『동아일보』, 1959. 8. 22.
『남편이 外道하면 아내도 바람난다』, 『여원』, 1959.10.
『瀆職뒤에는 女子가 숨어있다』, 『여원』, 1959. 12.
『쫓기우지않는 생활』, 『동아일보』, 1960. 1. 7.
『韓國女性運動의 當面課題』, 『새벽』, 1960. 2.
『學窓을 나와 職場에 가는 분에게 : 溫室의 꿈은 曠野에서 깨고』, 『여원』, 1960. 3.
『世紀의 女性 루즈벨트女史』, 『여원』, 1961.4.
『伊太利의 女流詩人 닛니다 샷다 메디씨女史』, 『여원』, 1961. 6.
『愛國에 通하는 生活姿勢』, 『여원』, 1961. 8.
『自由中國의 女傑 송미령 女史』, 『여원』, 1961. 10.
『美國의 上院議員 마가렛 · 스미스女史』, 『여원』, 1961. 12.
『내가만난 敎皇 二十三世』, 『여원』, 1962. 1.
『女性과 革命 : 女性運動의 새로운 方向』, 『신사조』, 1962. 3.
『잘사는 조건』, 『경향신문』, 1962. 3. 18.

「전설과 낭만의 섬 제주 上·下」, 『경향신문』, 1962. 4. 14./ 4. 18.
「명랑, 건실한 생활을」, 『동아일보』, 1962.4.29.
「생활의 창조에서 오는 것 : 여러나라들이 잘 사는 조건」, 『새길』, 1962.6.
「바다를 그리며」, 『경향신문』, 1962.6.21.
「남기고 싶지 않은 유산」, 『새길』, 1962. 10.
「가시면류관을 쓰고 웃는 어머니들」, 『새길』, 1962. 11.
「배움은 인생의 빛」, 『새길』, 1963. 1.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길」, 『새길』, 1963. 2.
「여성의 애국심과 기미운동」, 『새길』, 1963. 3.
「여성과 직업」, 『새길』, 1963. 4.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도」, 『새길』, 1963. 5.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關한 研究」, 『여원』, 1963. 7.
「재혼가정의 문제점」, 『새길』, 1963. 8.
「여성과 미신」, 『새길』, 1963. 11.
「가정생활의 합리화」, 『새길』, 1965.1.
「행복한 결혼의 조건」, 『농원』, 1965. 6.
「讀書와 生活」, 『출판문화』, 1965.10.
「梨花史에 못다한 말 上·下」, 『여상』, 1967. 10-11.
「요즘도 戀愛가 있는가 : 大學生風俗圖」, 『월간중앙』, 1969. 10.
「韓國大學出版의 現實」, 『출판문화』, 1974. 6.
「김마리아 의 生涯와 思想」, 『나라사랑』, 1978. 12.
이대원·정충량, 「가정과 생활 속의 文化空間-그 問題점 <對談>」, 『동서문화』, 1981. 5.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정충량, 『마음의 꽃밭』, 서울고시학회, 1958.

『동아일보』, 『경향신문』, 『새가정』, 『여원』

### 2. 단행본

구명숙, 『한국여성수필선집』, 역락, 2012, 245쪽.

모운숙, 『모운숙 문학 전집 2』, 성한, 1986, 290-291쪽.

박마리아, 『여성과 교양』,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55, 48쪽.

이광주, 『교양의 탄생』, 한길사, 2009, 10쪽.

한국여성연구원편,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성의 정치학』, 푸른사상, 2002, 5쪽, 34쪽.

캐롤 타브리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테리아역, 또하나의문화, 1999, 80쪽, 98-116쪽.

### 3. 논문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김영희, 「정충량 1916~1991: 최초의 여성 논설위원 여기자클럽 창설 주도」, 『신문과 방송』 458호, 한국언론재단, 2009, 112-119쪽.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 『여성문학연구』 2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47-180쪽.

소영현, 「교양론과 출판문화」, 『현대문학의 연구』 4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7-48쪽.

송인화, 「1950년대 지식인 여성의 교육과 기독교」, 『한국문예비평연구』 3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73-503쪽.

이선미, 「1950년대 여성문화와 미국영화」, 『한국문학연구』 37집, 동국대학

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469-509쪽.

이선미, 『『여원』의 비균질성과 ‘독신여성’ 담론 연구』, 『한국문학연구』 3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51-81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cept of Woman's Bildung in the 1950s

- Centered around the Concept of Jeong Chung-nyang's Woman's Bildung

Lee, Mi-Jung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 concept of bildung in Korea was a metaphorical expression referring to human essential qualities required for a new social class and civil group. The fact that the woman's bildung in the 1950s confined females as a class for enlightenment and limited their boundary within the family signifies an obvious existence of the order of ranks.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re was criticism against male-oriented society or discussions on the value of changes female roles evidences a broken view about the existing patriarchal society. In this process, the woman's bildung came to take on a critical significance as a symbolic expression for an important quality required for women to socialize themselves.

Jeong Chung-nyang refused to limit the notion of woman's bildung within the role of a mother or a wife. Woman's bildung, a precondition for females to be equal to males, was an important element in realizing the mature rational identity for a democratic society. Jeong tried to illuminate the issue of feminism from the context of the sociological system, and yet his emphasis on the concept of nobility as a preposition for gender equality resulted in transforming the critical awareness on the social system into an individual issue, and obscuring the content of the system and

categorization of woman's bildung.

In her discussion of gender e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emale-versus-male structure, Jung Chung-nyang revealed a strong assimilation of female roles with those of the males. Criticizing female dependency, she insisted on equal social roles between females and males. Her emphasis on progressive femininity may be rendered independent and progressive, and yet her "male-assimilation" rather reiterated the fixed concept of gender-specific roles. As a consequence, the limited discussion on woman's bildung served to fix females as an object of discipline and, and, viewing females as an object of enlightenment, revealed the order in ranks against males.

Key words : Jeong Chung-yang, Bildung, Female, Femininity of the 1950s, Woman's bildung, Assimilation of masculinity, Gender equality

■ 본 논문은 2015년 7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